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문화예술 A
- 응시번호 : 5-00091
- 성 명 : 김지영

외국어로 중국어를 전공하면서 저는 중국 어학연수와 유학을 통해 다차레에 걸쳐 중국문화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해외여행을 하며 각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모든 국가가 자국 문화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이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중국 바이어분들이 한국과의 무역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저는 그분들의 통역을 맡았습니다. 당시 2박 3일의 일정을 동행하며 바이어분들이 가장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순간은 한국 민속촌에서 전통놀이를 체험하던 때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감명 깊어하고,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 대한민국의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이 방화로 소실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큰 문제가 있구나’, ‘한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야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한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이 더 선호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고려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0년에 우연히 지인분과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게 되면서 전통 한국문화 활성화에 첫 시작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우선 한국사람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으며, 오감으로 체험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욱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대학교에서 관광 중국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한자와 중국어를 어떻게 하면 더욱 재미있고 쉽게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동기 부여와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수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향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민간 외교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중국 어학연수 시절에 우연히 상해 윤봉길 매헌기념관을 방문하면서 그 분의 친필 유서를 마주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애국지사의 정신을 함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학생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으며,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문화재청 산하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중국어 전문 해설 요원으로 활동하며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올바른 역사 해설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 가이드북과 중국어 가이드북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전주 한옥마을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학교에 입학하여 여러 전문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애초 관광 안내문 오류 관련 논문 투고를 희망하여왔기에 2018년 결국“경복궁 중국어 관광 안내문 오류 실증분석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고증을 참고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오랜기간 끝에 결국 학회에 성공적으로 투고하였습니다. 당시 전공학과와 논문 형식과 다소 상이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학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로 통합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비난을 극복하였습니다. 이후 이 논문은 대중화되었고, TV 광고에도 소개되면서 그 결과, 이전의 오류가 있었던 가이드북은 궁궐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궁궐 내에서의 해설은 역사서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역사관을 중심으로 전달되는 문화가 자리 정립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재조명과 함께‘선조를 공경하며 동시에 후손들에게 좋은 문화를 남겨주자’선순환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대학교 강의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선조를 공경하고 후손들에게 좋은 문화를 물려주는 ‘선순환’ 강의와 함께 한복을 입고 외국인과 사진을 찍으며 외국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장려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지인의 소개로 전통 도자기 명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고자 ‘코리아 유아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명인의 전통 천백광 도자기를 서울 인사동 아리수 갤러리에서 전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부산 지역을 발전시켜 일본 관광객의 유입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학생들에게는 도자기 체험 활동을 통해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양 교육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도자기는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와 역사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를 외국인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2021년 사단법인 한중문화교류 협회 주관 제2회 한복 국제선발대회에서 중국어 MC를 맡았습니다. 학생들에게 한복 활성화 교육을 진행하며 본인도 한복 관련 행사에 중국어 MC로 참여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 문화 활성화와 올바른 역사관 정립,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문화재단의 예술 지원 업무와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화성시는 정조의 효심이 깃든 역사적 지역으로, 저는 이곳에서 문화 콘텐츠 발굴과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한국 문화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공기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사 후에는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신속하게 학습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조직의 성과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년 10 월 01 일
 작성자 김지영 (서명)